

---

# 주요 현안 분석

|                                   |     |
|-----------------------------------|-----|
| I.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 102 |
| I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    | 115 |

## I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sup>1)</sup>

1. 검토 배경
2. 예금취급기관 자금조달 및 운용의 특징
3. 주요 잠재리스크 점검
4. 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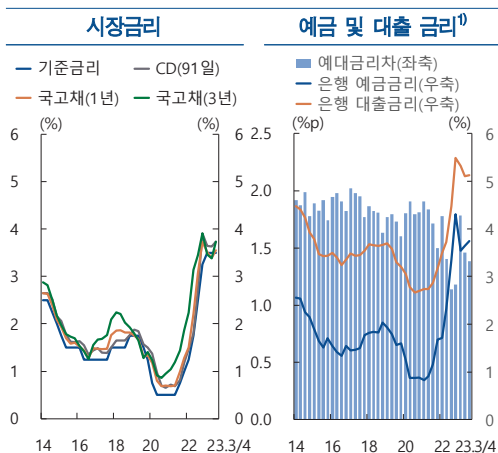
### 1. 검토 배경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대내외적으로 예금취급기관<sup>2)</sup>의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금리상승에 따른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 확대 우려로뱅크런을 겪으며 파산하였고, 이후 국내에서도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부각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인출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한편 작년 3/4분기 들어서는 예금취급기관간 예금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예금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예대금리차<sup>3)</sup>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II-1). 이와 같이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산측면에서도 대출자산 부실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이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저하되고 대손충당금과 자본적정성 등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었다.<sup>4)</sup>

예금취급기관은 안정적으로 예금을 조달하여 대출로 운용하는 영업모델을 지니고 있어 시장성 자금조달과 운용을 주로 하는 증권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높은 금리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화되면서 잠재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하 '비은행')을 중심으로 최근 금리상승기 전후로 자금조달 및 운용 측면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높은 수준의 금리가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다.

그림 II-1. 시장금리와 예금 및 대출 금리



주: 1) 신규취급액 저축성수신 및 일반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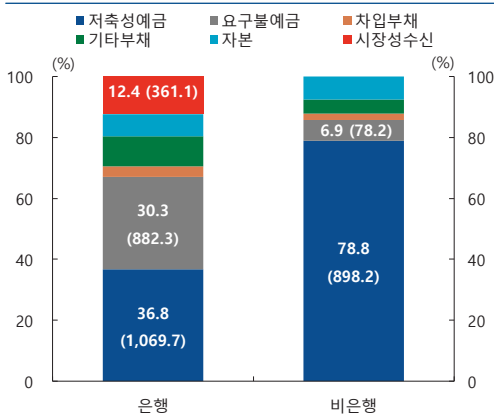
- 1) 본고는 유재원·백운아·박서정·홍준의(은행리스크팀)가 작성, 이종한(금융리스크분석부장)·송길성(은행리스크팀장)이 검토하였다.
- 2) 본고의 예금취급기관은 은행(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제외)과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주요한 자금조달원이 예금인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다.
- 3)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보면 대출금리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는 정부가 은행간 경쟁 강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국면에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대출자산의 부실 가능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고객 이탈 등으로 영업기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4) 금리상승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현안 분석> 「II.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예금취급기관 자금조달 및 운용의 특징

### 가. 자금조달

예금취급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은 예금(예수금)이며 은행은 비은행과는 달리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채 발행의 용이성, 저축성예금 및 요구불예금의 비중에 따라 은행, 비은행 및 비은행내 업권간 자금조달 부담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조달구조를 보면, 은행은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23년 3/4분기말 기준)이 전체 수신의 12.4%를 차지하고, 금리상승의 영향이 적은 저원가성 요구불예금의 비중(30.3%)이 비은행(6.9%)에 비해 매우 높다. 반면 비은행은 전체 수신 중 저축성예금 비중이 78.8%로 은행(36.8%)보다 2배 이상 높다(그림 II-2). 또한 비은행은 수신 유치를 위해 통상적으로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책정하고 있어 은행에 비해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2.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구조<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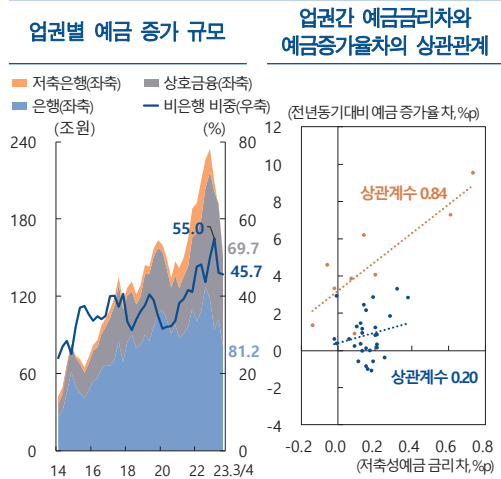


주: 1) 2023년 3/4분기말 구성항목별 비중, 괄호 안은 잔액(조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비은행으로의 예금유입 확대와 예금시장에서 은행 및 비은행간 경쟁도 증가

예금취급기관별 수신 변화를 중기적 시계에서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 하반기중 예금취급기관으로 유입된 예금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41.4%였으나 2023년 1/4분기중에는 55.0%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예금금리 격차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 기간중 은행과 비은행(상호금융) 간 예금금리 차와 예금증가율 차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는 과거보다 강화(상관계수 0.20 → 0.84)되었다(그림 II-3).

그림 II-3. 예금취급기관 업권별 예금 증가 규모<sup>1)</sup>, 예금금리<sup>2)</sup> 및 예금증가율<sup>3)</sup> 차이 간 관계<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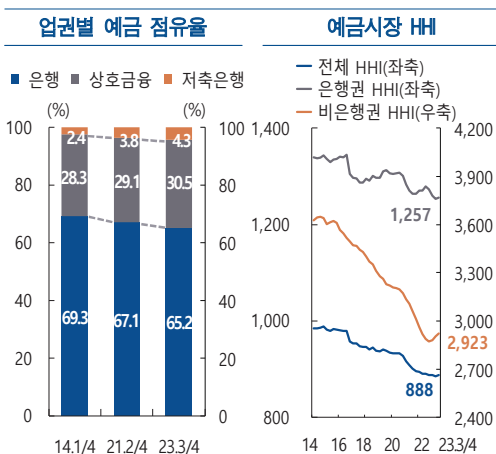


주: 1) 저축성예금의 전년동기대비 증가 규모  
 2) 저축성예금의 금리 차이(상호금융 -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3) 저축성예금의 증가율 차이(상호금융 - 은행, 전년동기대비)  
 4) 파란점은 2014년 1/4분기-2021년 2/4분기, 붉은점은 2021년 3/4분기-2023년 3/4분기에 해당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5) 2019년 1/4분기-2023년 3/4분기중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각각 평균 2.56%, 2.77%인 반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평균 2.13%, 은행채(1년 만기 AAA기준) 금리는 평균 2.09% 수준이다.

한편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저축성수신에서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30.7%)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3/4분기말 34.8%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비은행으로의 예금유입 확대, 예금시장에서의 비은행 비중 상승 등으로 인해 만기도래 예금 재예치 및 신규 예금유치를 위한 은행 간, 비은행 간, 은행 및 비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저축성예금시장에서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정도를 HHI(Herfindahl-Hirschman Index)<sup>6)</sup>를 통해 살펴보면, 동 지수가 2023년 3/4분기말 888로 2014년(985)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개별 금융기관 간 수신 경쟁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4).

그림 II-4.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시장 점유율<sup>1)</sup> 및 HHI<sup>2)</sup>



주: 1) 저축성예금 기준

2)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특히 비은행권 예금시장의 HHI를 보면 2023년 상반기까지 일부 상호금융 단위조합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유치 유인이 강화되면서 비은행권 내 경쟁도가 상당폭 높아진 모습이다. 이는 비은행권에서 저금리 기간중 준조합원 가입 확대<sup>7)</sup>, 비과세 상품판매 증대 노력 등 적극적인 수신 유치 활동을 통해 조달했던 예금의 만기가 금년 중 도래하면서 재예치 필요성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특히 지난해 4/4분기 단기금융 시장 불안 당시 은행의 자금 수요가 예금시장 내 업권간 경쟁을 일시적으로 촉발시킨 가운데 비은행권 내에서 만기도래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sup>8)</sup>

### 정기예금의 만기 단기화 심화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은행채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비은행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은행과 비은행 사이의 경쟁 촉진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편익이 체고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금리상승기 예금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예금의 만기가 지나치게 단기화되면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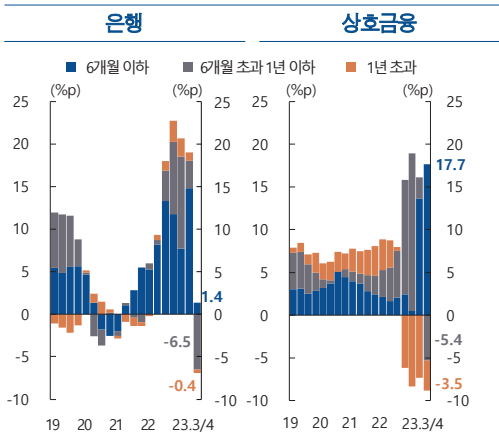
6)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시장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을 합한 값으로 산정되며 독과점시장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HHI가 높아지면(낮아지면) 경쟁도가 낮아진(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HHI가 1,000 미만이면 경쟁도가 높은 시장, 1,000에서 1,800 사이이면 경쟁도가 중간인 시장, 1,800 이상이면 경쟁도가 낮은 시장으로 구분되나 적용기준은 각 나라의 금융제도 및 산업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 2023년 9월 현재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가입수는 2015년말 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2년말에는 전년대비 3.3% 증가하며 상호금융의 예금 증가에 기여하였다.

8) 다만, 2023년 3/4분기 들어서는 비은행의 예금이 전분기말 대비 3.0조원 감소하는 등 비은행 간 예금유치 경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예금취급기관의 기간별 예금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예금만기 단기화 등으로 예금금리 산정주기가 짧아지고 만기도래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면서 예금잔액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예금잔액 변동성에 대한 단기예금(잔존만기 6개월 이하<sup>9)</sup>) 기여도를 보면 은행에 비해 비은행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높아진 모습이다. 이는 금리상승기에 가계가 단기예금 상품을 선호하는 데다 금융기관들도 장기예금 수신에 따른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단기예금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II-5).

그림 II-5. 예금잔액<sup>1)</sup> 변동<sup>2)</sup>에 대한 예금만기별<sup>3)</sup>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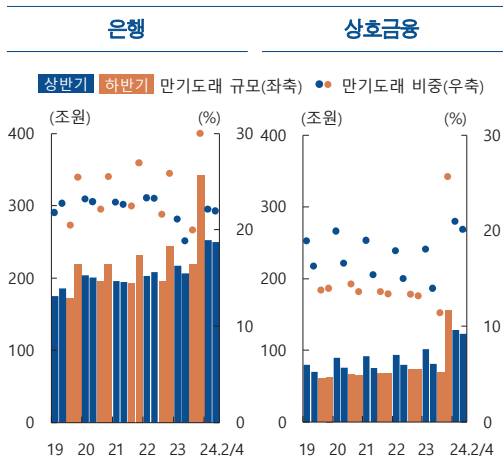


주: 1)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한부예금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잔존만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편 지난해 말 이후 수신 경쟁 과정에서 늘어난 단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은행보다는 비은행(상호금융) 예금의 만기가 특정시기에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수금(기한부예금 기준) 규모

를 살펴보면, 은행(분기평균 251조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상반기 분기평균(204조원) 대비 23.0%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상호금융(분기평균 125조원)은 같은 기간 44.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중 상호금융의 전체 예수금에서 만기도래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상반기에 비해 4.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I-6).

그림 II-6. 만기도래 예수금<sup>1)</sup> 규모<sup>2)</sup> 및 비중<sup>2,3)</sup>



주: 1) 2023년 9월말 현재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한부예금 기준  
 2) 2024년 2/4분기는 추정치  
 3) 2024년 상반기 비중은 2023년 9월말 기한부예금 잔액으로 추정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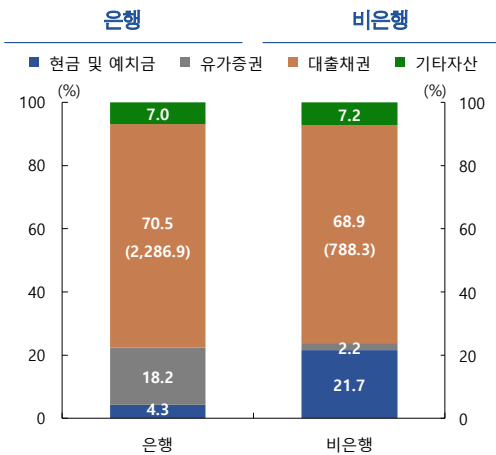
#### 나. 자금운용

예금취급기관들은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유가증권 투자보다는 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은행 및 비은행의 총자산 대비 대출채권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각각 70.5%(2,286.9조원), 68.9%(788.3조원)로, 대출채권이 각 업권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은행의 경우 대출채권 다음으로 유가증권의 비중(18.2%)

9) 특정 시점의 잔존만기는 이미 예치된 예금의 시간 경과에 따른 해당 시점의 잔존만기와 해당 시점에 신규 예치된 예금의 계약 만기로 구성된다.

이 높은 편이나, 비은행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치금 비중(21.7%)이 유가증권(2.2%)보다 훨씬 높다(그림 II-7).

그림 II-7.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운용 구조<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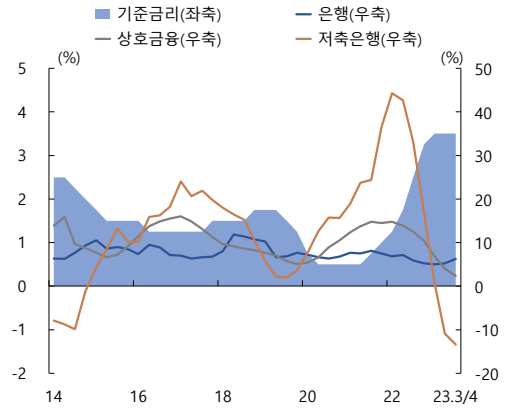


주: 1) 2023년 3/4분기말 구성항목별 비중, 괄호 안은 잔액(조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부동산담보대출시장에서 비은행 영향력 증가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자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두 번의 금리인하가 있었던 2020년 상반기 이후 부동산담보대출<sup>10)</sup>이 비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줄어드는 등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2019년말 이후 부동산담보대출의 분기평균(20년 1/4분기~23년 3/4분기) 증가율은 비은행(10.6%)이 은행(6.6%)을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II-8).

그림 II-8. 업권별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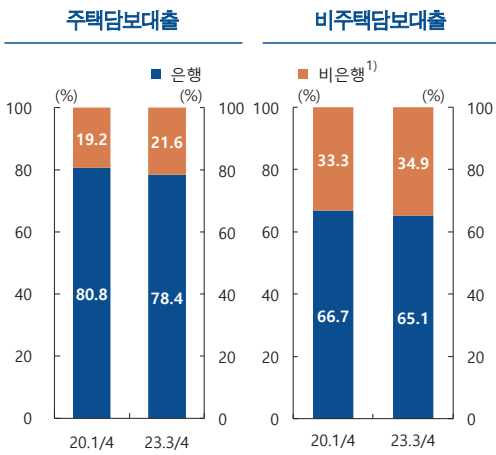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종류별<sup>11)</sup>로 은행과 비은행의 비중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은행의 비중이 2023년말 3/4분기말 78.4%로 2020년 1/4분기말(80.8%) 대비 2.4%포인트 줄어들었으며, 비주택담보대출에서도 은행의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65.1%로 2020년 1/4분기(66.7%) 대비 1.6%포인트 축소되었다(그림 II-9). 반면 비은행은 같은 기간 중 주택과 비주택 담보대출 모두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는 은행과 비은행 간 대출규제 강도와 적용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은행에 먼저 적용된 이후 시차를 두고 비은행권에 적용되는 과정<sup>12)</sup>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이 은행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된 대출 수요자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0) 가계 및 기업 차주를 포함한 전체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에 해당한다.

11) 담보종류별 부동산담보대출 데이터의 입수가능범위를 고려하여 2020년 1/4분기와 최근 시점을 비교하였다.

12) 예를 들어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경우 전 금융권에 도입된 2014년 7월 이전에도 은행과 비은행 적용 시점이 달랐으며 차주단위DSR 및 금융회사 평균DSR 규제도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였다(2022년 1월 이후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개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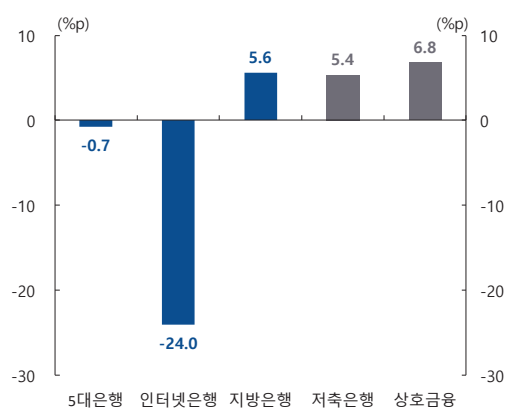
그림 II-9. 부동산담보대출 업권별 점유율



주: 1)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편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sup>13)</sup>이 높았던 비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금번 금리상승 기간중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였다. 2023년 3/4분기말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수도권 비중은 2019년말 대비 각각 6.8%포인트, 5.4%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권에서는 5대 은행 및 인터넷 은행<sup>14)</sup>과는 달리 지방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9년말 대비 5.6%포인트 높아졌다(그림 II-10).

그림 II-10. 업권별 수도권 주담대 비중 변화<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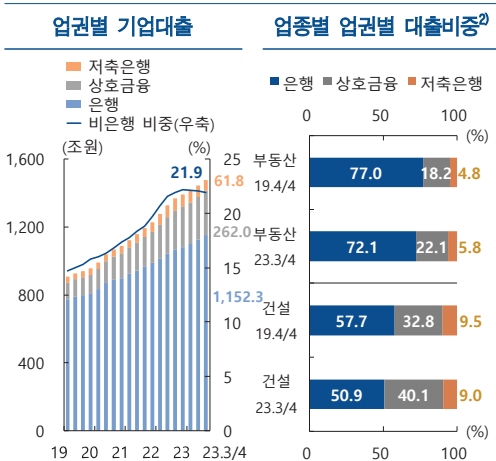
주: 1) 2019년 4/4분기-2023년 3/4분기중 변화  
2) 5대 은행은 우리· 신한· 하나· 국민· 농협은행,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중 비은행 비중 확대

기업대출에서도 비은행의 역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규모는 2019년말 151.0조원에서 2023년 3/4분기말 323.9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예금취급기관 전체 기업대출의 2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의 업종별 기업대출 중 비은행 비중은 건설업(19년말 42.3% → 23년 3/4분기말 49.1%), 부동산업(23.0% → 27.9%)에서 각각 6.8%포인트, 4.9%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I-11).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확대는 안정적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금융중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으로 대출이 쏠리는 것<sup>15)</sup>은 자금의 한계생산성을 낮추고 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이 부동산가격 변동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부동산담보대출을 포함한 비은행 전체 대출에서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65.4%로 은행(31.8%)보다 높다.  
14) 인터넷전문은행은 최근 전국으로 주담대 영업을 확대하면서 수도권 비중이 큰 폭 하락(19년말 100% → 23년 6월말 76%)하였다.  
15) 은행 기업대출 중 건설업·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24.0%인 반면 비은행(새마을금고 제외)은 4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11. 예금취급기관<sup>1)</sup>의 기업대출 및 업종별 현황

주: 1) 새마을금고 제외  
2) 해당 업종에서 각 업권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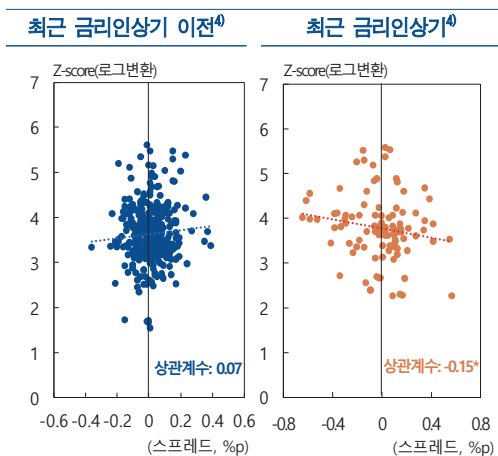
### 3. 주요 잠재리스크 점검

#### 과도한 수신경쟁 재현시 재무안정성 저하 우려

최근 시장금리의 상승폭 제약,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 등을 통한 은행의 예금의존도 축소와 같은 금융당국의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예금취급기관의 과도한 수신경쟁<sup>16)</sup> 행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중 만기도래 예금 규모가 여전히 예년보다 큰 상황이므로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경쟁적 수신확보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조달비용 상승에 대응하여 예금취급기관들이 대출금리 인상이나 고위험 대출 확

대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나설 경우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증대와 더불어 연체율, 자본적정성 등 재무지표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금취급기관 간 수신 경쟁이 재무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금리인상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금리상승기 이전인 2016년 1/4분기~2021년 2/4분기중 예금금리 스프레드<sup>17)</sup> 변화와 재무안정성(Z-score)<sup>18)</sup> 간의 유의적인 연관성은 없었으나 금번 금리상승기(21년 3/4분기~23년 2/4분기)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그림 II-12).

그림 II-12. 예금금리 스프레드<sup>1)</sup>와 재무안정성<sup>2)</sup> 간 관계<sup>3)</sup>

주: 1) 개별 예금취급기관의 분기별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예금금리와 CD수익률 간 차이  
2) 개별 예금취급기관의 Z-score = [(총자산수익률 + 자기자본비율)의 4분기 이동평균 / 총자산수익률의 4분기 표준편차]를 통해 측정  
3) 상관계수의 \*는 10%에서의 유의수준을 의미  
4) 최근 금리인상기 이전은 2016년 1/4분기~2021년 2/4분기, 최근 금리인상기는 2021년 3/4분기~2023년 2/4분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16) 2022년 하반기 예금취급기관은 부동산PF 관련 금융불안, 일부 규제 정상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수신확보에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 바 있다.

17)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수신경쟁의 대응지표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CD수익률의 차이를 통해 계산하였다. 동 스프레드는 절대적인 금리 수준(level)이 아닌 상대적 의미로 특정 예금취급기관이 타 기관에 비해 시장금리 대비 얼마나 큰 폭으로 예금금리를 인상했는지를 측정한다.

18) Z-score(로그 변환)는 [(총자산수익률+자기자본비율)의 4분기 이동평균]/(총자산수익률의 4분기 표준편차)로 계산되며 Z-score가 높을(낮을)수록 재무안정성은 양호(저하)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예금취급기관 간 수신경쟁과 재무안정성과의 관계를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더라도 최근 금리상승기(21년 3/4분기~23년 2/4분기)의 예금금리 스프레드 확대는 다른 기간보다 예금취급기관의 재무안정성을 더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아울러 예대금리차 수준별로 수신경쟁과 재무안정성 간 관계를 추가 분석해 보면, 금리상승기 예금금리 스프레드 확대와 재무안정성 간 부(-)의 상관관계는 주로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이번 금리상승기 동안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들에서 예대금리차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점<sup>20)</sup>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금융기관들이 향후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경로<sup>21)</sup>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비은행의 취약 부문 부실자산관리 부담 증대

예금취급기관들이 예금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높아진 금리 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화될 경우 채무상환부담이 높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 건전성 지표와 대출금리 수준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관측되고 있다. 2019년 이후 4년간 분기별 대출금리(t)와 3분기 후 고정이하여신 비율(t+3)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수준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의 정(+)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난다(그림 II-13).

또한 금리 상승기별로 고정이하여신비율과의 시차 변화를 살펴보면 은행과 달리 비은행은 금리 상승 시작점을 2~6분기 후행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높은 금리 수준이 시장 기대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비은행 건전성 지표의 저하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그림 II-14).

19) 2016년 1/4분기~2023년 2/4분기 15개 예금취급기관(일반은행 12개, 상호금융 2개 업권 및 저축은행 79개 전체 1개 업권)의 예금금리 스프레드, 은행 특성변수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2023-33호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조달형태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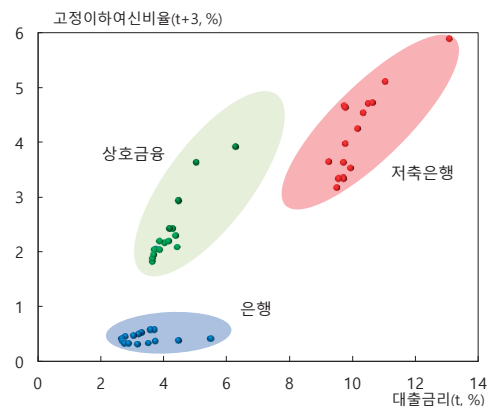
$$Y_{it} = \alpha_1 + \beta_1 \text{예금금리 스프레드}_{i,t-1} + \beta_2 \text{금리상승기}_{t-1} + \beta_3 \text{예금금리 스프레드}_{i,t-1} \times \text{금리상승기}_{t-1} + \gamma \text{은행 특성변수}_{i,t-1} + \nu_i + \epsilon_{it}$$

$Y_{it}$ 는 예금취급기관  $i$ 의  $t$ 분기 Z-score(로그 변환)이며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CD수익률의 차이를 통해 측정하였다. 금리상승기는 2021년 3/4분기~2023년 2/4분기 기간은 1, 이외의 기간은 0으로 나타낸 더미 변수이며 은행 특성변수는 총자산, 부채 대비 예수금 비중, 자산 대비 대출채권 비중, 연체율 및 이자이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nu_i$  및  $\epsilon_{it}$ 는 각각 은행 및 연도 더미를 나타낸다.

20) 예대금리차 수준별 금리인상기 예대금리차 변화를 보면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의 2021년 3/4분기 예대금리차는 1.79%포인트에서 2022년 4/4분기 1.14%포인트로 0.65%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예대금리차 수준이 높은 예금취급기관은 같은 시기 3.20%포인트에서 3.18%포인트로 소폭(0.0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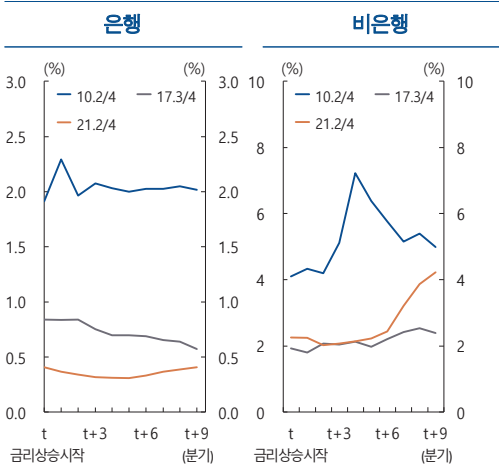
21)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한 Z-score 구성요소의 분해 결과를 보면, 금번 금리상승기 예금금리 스프레드가 10bp 확대될 경우 총자산수익률의 4분기 표준편차는 18b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가파른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 축소가 총자산수익률의 변동성 확대 등을 통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13. 대출금리<sup>1)</sup>와 고정이하여신비율 간 관계<sup>2)</sup>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2) 업권별로 16개 시점의 대출금리(19년 1/4분기-22년 4/4분기)와 고정이하여신비율(19년 4/4분기-23년 3/4분기)을 3분기 시차를 두고 비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14. 금리상승기별<sup>1)</sup>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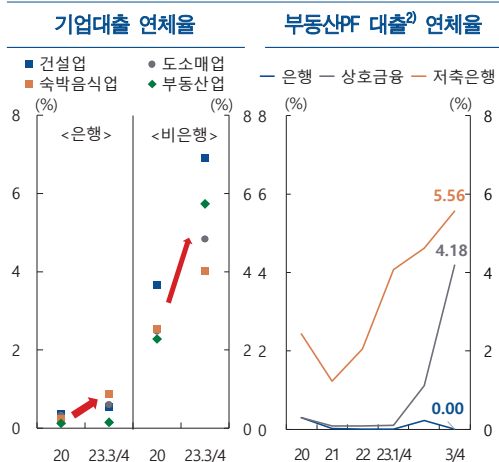


주: 1) ① 2010년 2/4분기-2012년 3/4분기, ② 2017년 3/4분기-2019년 4/4분기, ③ 2021년 2/4분기-2023년 3/4분기를 3차례의 금리 상승기로 구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은행 기업대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부동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최근 연체율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3년 3/4분기말 연체율을 2020년말과 비교해 보면, 부동산업의 상승폭이 3.4%포인트(2.3% → 5.7%)로 가장 가장 크

고, 다음으로 건설업(3.2%포인트), 도소매업(2.4%포인트)에서도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PF 대출의 경우에도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서는 은행과 달리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그림 I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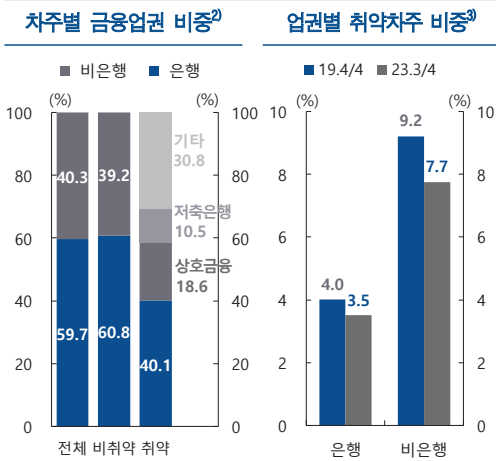
그림 II-15. 업종별 기업대출 연체율<sup>1)</sup>



주: 1) 은행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은행은 외은지점을 포함한 전체 은행,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

취약차주 가계대출의 업권별 비중을 보면 2023년 3/4분기말 은행이 40.1%, 상호금융(18.6%) 및 저축은행(10.5%) 등 비은행이 59.9%를 차지하고 있다. 업권별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비은행이 7.7%로 은행(3.5%)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23년 3/4분기말 은행과 비은행의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2019년말 대비 각각 0.5%포인트, 1.5%포인트 감소하였다(그림 II-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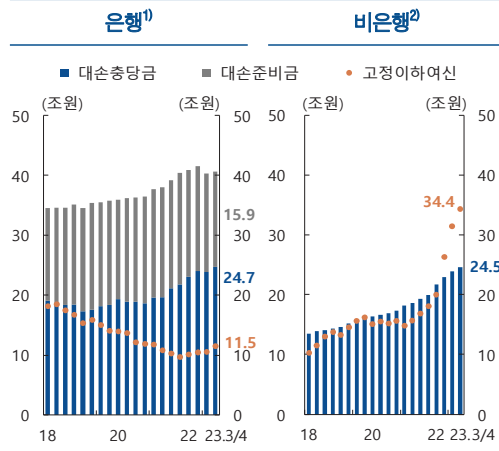
그림 II-16. 업권별<sup>1)</sup> 취약차주 가계대출



주: 1) 은행은 국내은행, 비은행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기타금융업, 대부업을 포함  
 2) 2023년 3/4분기말 가계대출 잔액의 업권별 비중  
 3) 해당 업권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대출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예금취급기관의 손실흡수여력을 살펴보면, 2023년 3/4분기말 은행은 고정이하여신 규모(11.5조원)에 비해 대손충당금(24.7조원)과 대손준비금(15.9조원)을 양호한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비은행은 고정이하여신 규모(34.4조원)가 대손충당금(24.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sup>22)</sup>(그림 II-17). 은행은 리스크 관리 및 금융당국의 추가 적립 독려 등으로 손실흡수력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은행의 경우 현재 고정이하여신이 단기간에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손실흡수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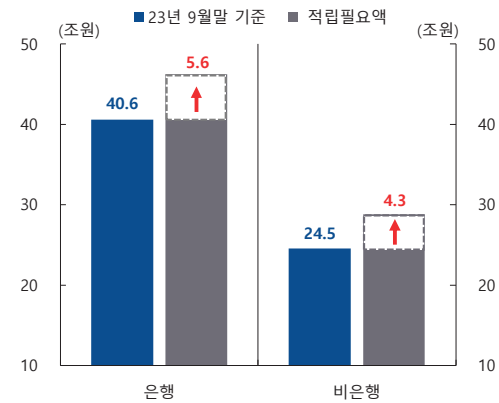
그림 II-17. 업권별 총당금 적립현황



주: 1) 국내은행 전체를 포함하며 대손충당금 + 대손준비금 기준  
 2) 대손충당금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록 은행이 총당금을 양호한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을 상정할 경우 은행도 총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시산된 만큼, 보수적인 상황 전개를 가정하면서 손실흡수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그림 II-18).

그림 II-18. 총당금 적립필요액<sup>1)</sup> 시산<sup>2)</sup> 결과



주: 1) 은행은 회계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친 감독규제상 최소 총당금적립필요액, 비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필요액을 추정  
 2) 2009년말 이후 부실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시점의 부실채권 비중으로 건전성 악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1년 후의 적립필요액을 시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22) 다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모두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감독기준인 100%를 상회하고 있다.

## 4. 평가 및 시사점

예금취급기관이 금융중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금원인 예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대출자산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여 부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4분기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거치면서 예금만기는 단기화되고 조달비용은 크게 높아졌다. 한편 부동산관련 대출이 코로나19 기간을 전후하여 크게 늘어난 상황이므로, 높은 금리 수준이 시장 기대보다 장기화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유동성 상황이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상당폭 호전된 가운데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적정성이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실흡수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단기시계에서는 만기도래 예금 규모가 확대되고 높은 금리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중에도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안정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sup>23)</sup>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은행 업권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업권별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역할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많은 일부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실자산의 상·매각 등을 통한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부실 규모는 확대되고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단기간에 늘어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를 통해 손실흡수력 보장이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 2024년부터 부과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의 순조로운 이행과 더불어 경기상황을 감안한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대응 여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홍진(2023), “국내은행의 예금 및 자산생산성: 예금시장 경쟁을 중심으로”, KIF연구보고서
- 노유철, 정서립(2023),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71(2), pp. 123-153
- 박경훈 외(2022),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2022(27)
- 박정희(2007), “예금금리 경쟁과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 금융학회지, 12(1), pp. 73-106
- 유재원 외(2023),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조달행태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2023(33).
- Anginer, D., Demircug-Kunt, A., Zhu, M.(2014), “How does competition affect bank systemic risk?”,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3(1), pp. 1-26

23)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 중앙회의 예수금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자금 유출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실시간 예수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 동 자료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 인프라에 활용될 예정이다.

Apergis, N.(2015). "Competition in the banking sector: New evidence from a panel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and the financial crisis", *Emerging Markets Review*, 25, pp. 154-162

Craig, B. R., Dinger, V.(2013), "Deposit market competition, wholesale funding, and bank risk",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7(9), pp. 3605-3622

Demirguc-Kunt, A., Huizinga, H.(2010), "Bank activity and funding strategies: The impact on risk and retur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8(3), pp. 626-650

Fiordelisi, F., Mare, D. S.(2014), "Competition and financial stability in European cooperative bank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45, pp. 1-16

Fu, X., Lin, Y., Molyneux, P.(2014), "Bank competition and financial stability in Asia Pacific",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8), pp. 64-77